

9월18일 소박하게 싹을 틔워 화려하게 피어난 꽃이 이달 21일 꽃잎을 떨어낸다. 안방극장에 활짝 피어났던 동백꽃을 많은 이들이 그리워할 것이다. 9월18일 첫 방송해 최근 방송일인 13일 20.7%(닐슨코리아·전국기준)의 시청률을 돌파한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아쉬움 속에 21일 종영까지 이제 2회분만을 남겨놓았다. 공효진과 강하늘의 캐릭터 소화력과 호흡, 고두심·오정세·김지석·김선영·'까불이' 등 주조연들은 물론 단역, 카메오 출연자까지 모두 완벽했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임상춘 작가야말로 이들이 마음껏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준 '진짜' 주역이다.

'까불이'보다 더 궁금한 '동백꽃' 작가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이 21일 종영을 앞두고 더욱 가파른 인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인공 공효진(왼쪽)과 강하늘이 중심이 된 연기자와 제작진이 올해 하반기 최고 인기작으로 이끌었다. 사진제공 | 팬엔터테인먼트

본명 임진아...2014년 정식 작가 데뷔 '백화가 돌아왔다' '쌈, 마이웨이' 히트 언론 접촉 피해...대중과 글로만 소통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디테일 강점 청주 출신...극중 충청도 사투리 애용

'동백꽃 필 무렵'은 공효진과 강하늘로 시작해 임상춘 작가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종영이 가까워지면서 임 작가를 향한 관심과 궁금증이 그만큼 증폭되고 있다. 재미와 감동, 센스로 버무린 대사와 시청자의 일상 어딘가에 있을 법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소소한 재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하지만 임 작가에 관해 알려진 정보는 그리 많지 않다. 그 흔한 사진조차 없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쳐놓은 임 작가는 과연 누구일까.

●'까불이'보다 더 수수께끼 한국방송작가협회가 발행하는 작가수

첩에도 임상춘 작가는 자신의 사진을 등록해 놓지 않았다. 남성인지 여성인지, 이름만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한 열혈 팬은 친근함에 임상춘 작가를 '상춘이 형'이라고 부른다.

임 작가는 30대 중반의 여성이다. '임상춘'은 필명이고, 본명은 임진이다. 임 작가의 지인들은 그가 "작고 귀여운, 예뻐장한 이미지를 가졌다"고 말한다.

임 작가는 2013년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주최한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삼춘기'로 SBS플러스상을 수상했다. 이후 2014년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에 보낸 사극 장르의 대본이 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작가로 데뷔, 그해 단막극 '내 인생의 흑'과 웹드라마 '도도하라'를 썼다. 2016년 '백화가 돌아왔다'를 시작으로 2017년 '쌈, 마이웨이'와 올해 '동백꽃 필 무렵'으로 활동을 이어가며 자신의 색깔을 구축하고 있다.

덕분에 임 작가에게 언론 인터뷰 요청이 밀려들지만 그는 모두 고사하고 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글로 대중과 소통하

고 싶다는 이유에서다.

임 작가와 '쌈, 마이웨이' '동백꽃 필 무렵'을 함께 작업한 KBS 이진준 CP(책임프로듀서)는 14일 "임 작가는 '작가는 글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촬영장에서 고생한 연기자와 제작진이 주목받아야 한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쌈, 마이웨이'를 연출한 이나정 PD는 "임 작가가 그동안 해왔듯이 조용히, 오래오래 글을 쓰고 싶어 한다"고 했다.

●'평범한 속에서 특별한 꼬집어내는 필력'

임 작가의 드라마에는 공통적으로 위로, 응원, 격려 등 따스한 키워드가 담겨 있다. 앞서 '백화가 돌아왔다'에서는 싱글맘의 삶을 따뜻한 시선으로 들여다봤고, '쌈, 마이웨이'로는 성공의 압박 속에서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청춘의 마음을 달래다. 재벌을 등장시키거나 권선징악의 이야기 구조도 활용하지 않는다. 불쾌함을 주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없다.

대본에서는 세밀한 지문 등 그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난다. 영화 '마더' 속 김혜자가 춤추는 장면엔 나오는 곡 '춤 프롤로그' 등 '동백꽃 필 무렵'의 음악도 모두 직접 선정했다.

충청도 사투리 대사로 빼놓을 수 없다. 실제로 임 작가는 충청도 청주 출신이다. '백화가 돌아왔다' 이후 모든 드라마에서 충청도 사투리를 썼다. 또 바다를 배경으로 한다. 각각 경남 통영의 비진도, 부산, 경북 포항을 주요 촬영장소로 활용했다. 그래서일까. 임 작가를 아는 한 작가는 "노스탤지어를 자아내는 표현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

이진준 CP는 "임 작가는 참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며 "자신의 성향을 드라마에 잘 녹여낸다"고 말했다. 이나정 PD는 "모든 캐릭터에 애정을 담는다"며 "각 캐릭터가 얼마나 특별하고 사랑받을 만한지 잘 표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범함에서 특별함을 꼬집어내는 실력이 탁월하다"고 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주말기획

3

2019년 11월 15·16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동백꽃 필 무렵' 흥행 신의 한 수



드라마에 감칠맛을 더하는 조·단역도 드라마 인기의 핵심이다. 극중 배경인 웅산에서 나와 '웅벤저스'로 불리는 김선영·이선화·백현주·김미화·한예주·김모아.(왼쪽부터) 사진제공 | 팬엔터테인먼트

로코인 줄 알았는데 스릴러 강하늘 없었으면 어떡할 뻔 '웅벤저스' 등 명품 조연들도 큰 힘

'동백꽃 필 무렵'의 인기 요인을 한두 가지로만 꼽기는 어렵다. '신의 한 수'에 가까운 몇 가지 선택이 없었다면 드라마에 대한 시청자 관심은 미미했을지 모른다.

●'대체불가' 강하늘

시작할 때만 해도 '공효진의 드라마'로만 인식됐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강하늘을 언급하는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범죄자를 색출하는 히어로, 사랑에 직진하는 로맨티스트, 약자에 마음 쓰는 휴머니스트의 매력을 두루 갖춘 주인공 용식을 강하늘이 아닌 다른 누가 표현할 수 있을까. 대체할 배우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 탁월한 캐스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는 부산 출신이지만 진짜 고향은 충청도가 아닐까 작각마저 일으키게 하는 사투리 연기도 압권이다.

●로맨스·코미디·스릴러...장르 융합

연출자 차영훈 PD는 방송 전 "동백과 용식의 멜로이자 웅산이란 마을에서 펼쳐지는 휴먼 드라마"라고 밝혔다. 스릴러도 거들었다. 첫 회부터 베일에 싸인 연쇄살인마 '까불이'의 존재를 거론해 시청자가 직접 추리하도록 이끌었다.

로맨스와 코미디에 스릴러까지 버무렸지만 이질감은커녕 오히려 폭넓은 시청자를 끌어들이는 배경도 바로 '휴머니즘' 덕분이다. 선과 악으로만 구분할 수 없는 인간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면서 공감을 얻었다. 장르 드라마가 주류로 자리 잡은 환경에서 휴머니즘의 힘을 과시했다.

●주조연 구분 없는 '드림팀'

주연과 조연의 구분은 중요치 않다. 드라마를 소개하는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등장인물의 수는 27명에 이른다. 여느 드라마의 세 배다. 제작진이 각각의 인물을 얼마나 공들여 설계했는지 드러내는 대목이다.

고두심, 이정은, 염혜란, 오정세, 손담비는 물론 동네 영웅 '웅벤저스'를 자처하는 김선영, 김미화, 이선화 등 실력과 배우들이 적재적소에서 활약했다. 60분 동안 단 한 장면만으로도 안방극장을 장악했다. 후반부 활약 중인 '집사 시어머니' 전국향, '더 미운 장모님' 황영희도 '드림팀'의 멤버다. 이해리 기자 gofi1024@donga.com

'동백꽃 필 무렵' 명대사 열전

"매일 생일로 만들어주겠다" '촌프파탈' 용식의 심쿵멘트

'동백꽃 필 무렵'이 시청자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사의 힘이 빼놓을 수 없다. 때로 피식 웃게 만들고, 또 때론 가슴을 뭉클하게 하며, 어느 때는 뒤통수를 맞는 듯한 대사 한 마디가 시청자의 뇌리에 차곡차곡 쌓였다.

●"이 사람이 자꾸 나를 고개 들게 하니까." (10월3일 11·12회)

사랑받는 여자들의 공감 100%. 내 편이 생기면 무서운 게 없다. 동백(공효진)도 그렇다. 고아원에 버려진 날이 생일인 동백은 "매일 생일로 만들어주겠다"는 용식(강하늘)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에 감동한다. 늘 땅만 보고 걷던 동백이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이다.

●"니가 먼저 했다." (10월

16일 17·18회) 많은 여성 시청자의 '이불킥'을 이끌어낸 한 마디. 우직하고 순박할 줄만 알았던 용식의 박력. 자신의 불에 입 맞추는 동백이 예뻐 참지 못하고 그대로 키스한다. 남자답고 은근 섹시한, 이게 바로 황용식 전매특허 '촌프파탈'.

●"나를 잊지 말아요." (10월 24일 23·24회)

말랑초의 꽃말, 이렇게 슬플 수 있을까. 혈육에 버

림 받고 집도 절도 없는 향미(손담비)를 품어준 유일한 사람, 동백이다. 향미는 "너 나하는 그냥 나 좀 기억해주라. 그래야 나도 세상에 살다 온 거 같지"라며 운다. 손담비의 재발견.

●"엄마, 마마, 마더..." (10월6일 29·30회)

그야말로 세계 공통어. 모든 자식들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단어다. '엄마' 하고 부르면 어디서든 편안하고 나타날 것 같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퍼주고 퍼줘도 아까울 게 없는 엄마다. 그런 엄마는 "본능적으로 내 자식한테 해 끼칠 놈을 안다". 백슬미 기자

